

아메리카 20〔I〕

安 箕 泰 — 동화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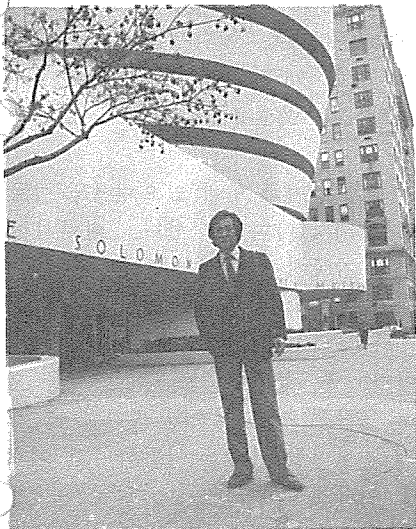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 해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1978년까지 2차에 걸친 訪美를 통하여 AIA 및 건축관계인 사들과 친교를 맺어 왔었다. 그러나 그 후 協會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차례 걸친 AIA로부터의 초청이 있었으나 응하지 못하던 차에 갑작스러운 초청의 기회가 있어 출국수속 10여일만인 1982년 2월 9일, 서울支部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팀이 訪美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訪美目的은 AIA 로스엔젤리스支部 및 CIRB (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Board)와의 회합을 갖기 위함이며 방문처는 AIA本部였다.

日程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여 각 지역별로 일정표를 작성하였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발생할 변경사항도 고려해 놓았다.

◆뉴욕

10여 시간의 空路를 거쳐 무사히 케네디空港에 안착했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시각이 2월 9일 19시 20분이었으나 時差탓으로 뉴욕 도착시간 역시 同日(9일)인 21시 05분이었다.



□ 뉴욕 Solomon R. GYGGENHEIM 박물관에서

입국수속은 앵커리지空港에서 마쳤으나 통관수속을 하기 위해 잠시 기다리면서 공항 내의 풍경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처음 느낀 것은 行動凡節과 대인관계 등의 言行方式을 미국식으로 익혀야 함을 실감했다. 한국적인 사회 분위기의 一面으로 自他間의 언행이 과히 매끄럽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미국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그곳의 사회 분위기는 그러한 관습에 익숙치 못한 우리에게 다소 부담스러움을 주었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거일등에 신경이 쓰여졌다. 물론 우리의 생활풍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르는 그들 社會에 발을 들여 놓았음으로 그들 방식대로 행해주는 것도 國際社會人으로서의 예의일 것 같았다.

通關이 시작되어 우리 일행은 공항을 빠져 나왔다. 일행 중에는 해외근무나 歐美各國을 여행한 경험이 많은 회원들도 여럿 있었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初行이었기에 나는 뒤에서 그들의 거동을 주의깊게 지켜 보았다. 그러나 구김없이 여유있게 처신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社會의 지도층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專門職人임이 당연하다는 것을 느끼며 흐뭇한 마음이 되었다.

稅關申告書에 수만 달러를 소지하였다고 기재한 관계로 세관원으로 부터 돈의 내용에 대해 물음을 당했으나 15명 회원의 共同費用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세관원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소지품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뉴욕은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일행은 뉴욕 중의 뉴욕이라 불리는 맨해튼 중심부(Mid Town Manhattan)에 자리잡은 Stater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호텔은 약 100년은 실히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으며 객실수 또한 2천여개나 됴직했다.

출국 이후 처음 대하는 韓式으로 늦은 저녁을 마치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밤거리를 구경하고 돌아오니 깊은 밤중이었다. 그러나 친지들이 달려와 피곤함도 있은채 환담의 꽃으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친지들을 전송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다. 길모퉁이에 뻗어 보이는 목로주점. 누군가가 한잔 하자고 한다. 시간은 새벽 한시. 몇순배하고서 헤어졌다.

새벽 두시의 뉴욕에서의 첫밤.

호텔 문앞에 우두커니 홀로 서있는 심정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다.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시선을 한바퀴 돌려본다. 그때 나는 갑자기 군중들의 환호성을 듣는 착각 속에 잠깐 빠져 들었다. 그것은 낮익은 建物, 바로 알리의 세기의 對決場所였고 유명한 集會의 본산인 Madison Square Garden 建物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 궁금증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조건으로 보아 여러가지 機能上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하는 점이였다(그후에 비결을 알았지만).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생각이 들어 정신을 가다듬고 숙소로 들어섰다. 푹 쉬자. 일행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들었겠지…….

아메리카大陸 순방의 大長征(?)의 첫날이 밝았다.

全員이 예정된 일정표에 따라 한치의 어김도 없이 서로 앞장서서 움직여 준다. 일정이 순조로울 것 같은 것을 직감하니 밝은 마음이 되었다.

3일간의 뉴욕日程은 너무 짧았다(全日程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없

이 走馬看山格으로 훑어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박 겉핥기 식이라 해도 평소에 갖고 있던 지식이 바탕이 되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문직의 建築人으로서 마땅히 도시, 환경, 건축 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했으나 나는 異端의인 생각을 갖았었다. 즉 각 분야의 風物과 表情을 살펴 보는데 더 큰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미국의 3대 名所 중의 하나인 自由의 女神像으로 나룻배를 타고 서서히 다가갔다. State의 建立의 역사적 동기와 규모 등은 주지의 사실이 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祖國을 떠나 희망과 불안으로 뒤엉킨 마음을 조이며 거센 파도에 시달리다 新天地에 첫발을 딛게 되면 처음 만나는 것이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며 그녀의 품 안에 안기게 된다. 바로 옆에 보이는 당시 移民局建物を 보면서 100년 전의 풍경을 상상해 보았다.

나룻배에서 내려 그녀의 몸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 본다. 女神像의 의미에는 역사적이고 크고 아름답다 등의 구경거리로만은 보아 넘길 수 없는, 미국의 중요한 혼이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社會構造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곳이야말로 自由精神의 원천이자 교훈의 場이며 실천의 상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과 같은 自由를 누리기에 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을까? 거기에는 상당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自由를 Freedom이라 표현하지 않고 Liberty라 한 것도 어쩌면 그들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런지……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돌아본 곳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World Trade Center**

1966년 착공, 10년 후에 준공. 110층으로서 延 30만평, 승강기 99대, 약 5만명 수용

*** UN本部**

이스트江邊의 42番街에서 48番街까지의 약 73,000m²의 대지 위에 세워져 있음.



□ 뉴욕 링컨센터에서의 일행들

록펠러 기증, 총회장·사무처·각 이사회,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국에서 기증한 자료 및 기념물로 건축 또는 전시장식. 한국 참전 16개국의 뜻을 새긴 銅板을 벽면에 부착.

*** 애플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1년 완공. 5TH AVE~34TH ST. 102층으로서 높이 381m. 수용인원 15,000명, 매일 35,000명이 방문.

*** 록펠러 센터**

Rockefeller Plaza의 50,587m²에 16개의 빌딩群으로 형성되어 있음. 1922~1939년 사이에 건축. 文化·科學의 정수임. 그 중 RCA, Radio City Music Hall 등이 유명함.

*** 세인트 페트릭 대寺院**

5TH AVE 방향. Roman Catholic Church로서 고딕식 건물.

*** General Grant National Memorial 및 리비사이드教會** — Christ Chapel, 72개의 鐘이 유명

*** Solomon R. Gyggenheim Museum**

1946-1959. Wright의 作品. 현재 <Kandinski In Munich>가 전시 중인 데 승강기로 상층까지 올라가 나선형의 전시장을 下向 觀覽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대다수의 觀覽객들은 경사로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 링컨센터**

West 62ND ST-66TH ST의 중간. 필하머니홀·뉴욕 State Theatre·Vivian Beaumont Theatre·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등이 있으며 심포니·연극·영화·발레·오페라의 중심지.

그 밖에 흑인의 할렘街와 센트럴 파

크, 뉴욕 근교의 住宅街 등을 두루 살펴 보았는데 아쉬운 것은 욕심을 부려서라도 적어도 프릭美術館·뉴욕歷史學會·自然박물관·뉴욕市 박물관·현대미술관 등을 들렀어야 했지만 강행군에 박차를 가해도 시간과 정력이 워낙 力不足이어서 포기하고 말았다. 또 한가지 이유로는 박물관 관람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것이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식의 觀覽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하루종일 觀覽하고서도 미진한 점이 있어 다음날 다시 가서 그 부분만 보고 1시간여만에 나오니까 수위가 놀라면서 어떻게 그처럼 빨리 觀覽할 수가 있는냐며 놀라더란다.

뉴욕 체류 3일간의 일정이 이상과 같으며 우리는 저녁의 自由時間마저도 함부로 보내버릴 수가 없었다. Ambassador Theatre 劇場의 <Dancin>(Broadway Show)이라는 전위무용을 觀覽했는데 가 하면 대포집에도 들러 보았으며 환락가의 꽃들을 심층 답사 하기도 했다.

뉴욕은 미국 안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都市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집결된 각분야의 사람들이 들끓고 있으므로 凡世界的인 都市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즉 뉴욕을 보고서 미국을 알려 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진정한 미국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이유에서이다.

허 드슨江 입구에 위치한 뉴욕灣 쪽의 뉴욕은 이 나라 경제·문

화의 중심지이며 패션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5개 지역 중의 하나인 맨해튼 남단은 치솟은 마천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온갖 榮華를 맘껏 자랑하고 있다.

Wall街는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증권·은행·어음교환소 등이 집결되어 있으며, 근처에는 시청·중앙우체국·법원 등이 있다. 5番街를 중심으로 중앙공원에 이르기까지는 뉴욕 중심부 중의 중심부로서 각종 有名建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길게 자리잡은 중앙공원 양측은 공원을 바라보기에 아주 좋은 明堂이며 공원 끝머리를 장벽으로 하여 할렘街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중앙공원이 없었다면 黑人村은 점점 더 확장되었으리라.

첫날 空港에서의 黑白事件(사건이랄 것도 없지만)이 생각났다. 짐을 찾아 통관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난폭한 高聲과 함께 진장한 흑인 세관원이 백인 통관객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으로서는 처음 보는 공포어린 광경이었다. 동료 직원이 흑인 세관원을 말리지 않았었다면 流血劇이 벌어졌을 것이다. 사연인즉 백인 승객이 통관 때 흑인 밀사의 연행을 하여 참지 못한 흑인 세관원이 분통을 터뜨린 것이었다.

黑白의 미묘한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느낄 수 있었다. 으레껏 그러려니 하는 측과 아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측, 도시 이해하기 어렵기만 했다. 그것은 당연하리라. 어찌 수백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社會問題를 알 수 있겠는가.



□ 하버드대 설계실

또한가지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시내 어느 구석이나 온통 낙서가 판을 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현상을 落書文化(?)라고 칭하고 싶으며 그것은 落書産業(?)으로 발전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지하철의 포음과 車体는 낙서의 천국이었고 天惠의 낙원이 되고 있었다.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教會의 壁面에는 애교스럽게도 단 하나의 낙서 밖에 없었다. 그 후 몇몇 사람(우리나라 사람)에게 낙서의 근원 및 배경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별로 아는 이가 없고 그저 그런가 보다 라는 대답 뿐이었다.

종합해 보면 검은 계통의 社會的 불만, 욕구의 표현, 이에 편승하는 극소의 白人 동지들의 협조 등이 이유일 것이다. 落書 또는 落畵라고나 할까? 그 표현이 다양하여 어느 것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構成과 表現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카고(IIT) 徐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전문 낙서가가 있어 落書畵의 수준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낙서의 재료는 스프레이를 이용하고 있고 낙서가 세척제에 의해 지워지면 낙서가의 체면이 손상된다는 생각들인가 보았다. 그래서 어떤 강력 세척제로도 지울 수 없는 슈퍼 낙서전용 스프레이가 개발·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落書産業의 발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보스톤

한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보스톤 空港에 도착했다.

古色질은 Bradford Hotel에 여장을 풀자마자 시내 관광에 나섰다. 다른 都市에 비해 시내가 좁고 고색창연한 느낌이었으나 이 점이 이 都市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매사추세츠灣의 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는 보스톤港을 중심으로 불규칙한 방사선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었다.

뉴 잉글랜드에서 제일 높다는 John Hancock Observatory에 들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市内全景을 바라보며 뉴욕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에 사로잡혔다.

여정의 초반인데도 時差·宿食, 그

리고 하루 10여 시간의 강행군 등으로 회원들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일정의 분량을 줄여야겠기에 몇몇 곳만을 순방기로 했다.

* John Hank Observatory

* Harvard University

* MIT工大

* John F. Kennedy Library (I. M. Pei 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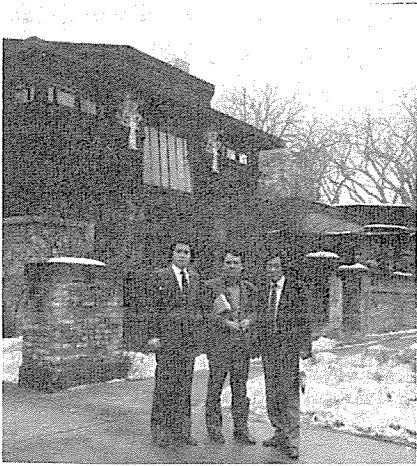
보스톤의 일정에서는 뉴욕의 복잡한 물결로부터 벗어난 때문인지 단순하면서도 안정된 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버드를 방문했을 때는 명지대학의 박 찬무教授(Urban Design연구)의 안내로 교내를 둘러 보았으며 건축관계의 환담으로 뜻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設計室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웬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단식으로 된 넓은 室內空間은 가슴 높이의 칸막이로서 드문드문 구획되어 있었다. 그러한 空間構成에 낯설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천정으로 눈을 돌리니 온통 노출된 파이프構造物 투성이어서 마치 工場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박教授에게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장점도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추운 지방인 이곳에서는 근래에 와서 새삼 연료소비의 과다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자 나라인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대담한 設計라는 말도 곁들여 들려 주었다.

MIT工大에서는 학교측의 배려로 캠퍼스의 배치도와 안내문 등을 얻어 교내를 두루 살펴 보았으며, 2일간의 보스톤 방문을 비교적 순탄하고 간단하게 마치었다. 그리고 걸보기로나마 市街地의 건물이며 風物을 훑칠 수는 없었다.

Paul Revere (1660), Old North Church (1723), State House (1795), Common Park 등이 산 역사의 증인처럼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시내 住宅街는 펍 인상적이었다.

보스톤의 밤거리는 덜 위험하여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저녁은 차이나 타운의 中 國식당에서 들었는데 바다가재 등, 이름모를 요리가 식탁을 메웠다. 飯酒로 香港産 배갈



□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기념관에서

을 드니 세상에 부러울게 없다.

일행 중 한 팀은 개(犬) 경주장에 가서 수십달러를 손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달러의 횡재를 했다 하여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점심시간에는 생선시장엘 들러 보았다. 싱싱한 생선과 야채가 눈길을 끌었으며 좁은 노점은 우리나라 시장 골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주로 이탈리아계가 많아 이탈리아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생선회를 몇점 들고 기념촬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날음식을 먹는 같은 人種이라고 여겨서인지(장사숙인지는 몰라도) 여간 친절하게 아니었으며 또 들러달라고 한다.

보스톤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일찍 쉬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 12시가 넘어야 잠이드는 습관이 생겨 잠이 올지 못했다. 호텔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며 내일의 여정을 살폈다. 와싱턴의 李元均씨에게 우리 일행의 거취를 알리는 전화를 걸었다.

호텔 로비 옆에 있는 〈바〉에서 귀에 익은 곡조의 피아노 선율이 흘러 나오기에 일행 중 3명이 〈바〉로 들어갔다. 꽤나 점잖은 분위기였다. 카운터에 걸터앉아 하이네켄 맥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바텐더에게 말을 걸었더니 올리브·체리 등을 내놓으며 마음대로 먹으란다. 희망곡을 신청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기에 영화 〈慕情〉의 주제곡과 〈마이웨이〉를 신청하여 듣고 답례로 피아니스트에게 쥬스 한잔을 서비스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대중음악 얘기가 오가는 중에 컨트리 뮤직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이 고장에 서는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았다. 역시 지방에 따라 다른가 보다.

◆ 와싱턴

Delta A. Lines 便으로 40분 거리인 와싱턴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사이도 없이 전세버스를 타고 시내 관광에 나섰다.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건 콜롬비아區라는 특별 행정구역인 와싱턴은 이 나라의 수도이다.

포토우막江 북쪽의 발달된 이 도시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州名이 붙은 도로가 방사형상으로 벌여 있으며, 펜실베이니아街는 의사당과 백악관이 연결되는 유명한 거리로서 高層建물이 적은 것이 특색이다. 의사당인지 또는 와싱턴 Monument인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도시에는 세계의 政治一番地다운 굵직한 유명 건물들이 여윌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官街·法院·각종 박물관·기념관들이 그림같이 늘어서 있다.

Washington Monument, John F. Kennedy Center, Thomas Jefferson Memorial 등을 돌아보고 Shoreham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마침 2월 15일이 Washington's Birthday인 관계로 공휴일이어서 14일에 이어 연휴가 되어 있다.

다 음날 링컨記念館·우주博物館·National Gallery(로댕의 작품 전시 중)·스미소니안美術館·국회의사당·알링톤 국립묘지 등으로서 일단 순회 일정을 끝냈다.

방문객이 로비에서 기다린다기에 내가 보니 李元均형과 權璟模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주고 받았다.

오늘이 바로 在와싱턴 韓國建築人の 舊正모임날이며 우리 일행을 정식 초대하기로 결정되었다기에 일행 중 5명만이 대표로 참석하였더니 알만한 얼굴들이어서 뜻밖의 환대를 받아 가며 많은 시간을 뜻있게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 저녁에는 李元均·權璟模·洪영기 형들이 음료수와 갖가지 酒肴를 마련하여 호텔로 찾아와 밤늦도록 즐거움을 나누었으며, 두고 두고 잊

혀지지 않을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준 세분한테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4일은 와싱턴 베이클 하루 앞둔 비렌타인 날로서 호텔 안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한 인사들로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古典的인 우아한 실내장식의 넓은 호텔 로비에는 각양각색의 연회복을 입은 숙녀들이 장신구를 자랑하듯 화려했으며 거의 등을 내놓은 아슬아슬한 차림이었다.

우리 일행도 걸레되지 않은 복장을 하고 로비이며 라운지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아 뜻하지 않은 좋은 구경 거리에 덩달아 즐거웠다. 무도장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왈츠곡이 타향나그네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이게 했다.

일행 중 尹元錫회원이 무도장 입구의 접수인에게 초청장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환영 이라면서 약간의 회비만 내면 OK란다. 그러나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막상 들어 가려고 하니 파트너도 없을 뿐 아니라 춤도 익숙치 못해 아무에게나 프로포즈할 수가 없는, 言語·社交性의 핸디캡 때문에 여간한 배짱이 없이는 참석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았다.

라운지에 주저앉아 마티니 한잔씩을 청한다. 오늘따라 여급들이 유난히 친절하다.

내일 아침에는 시카고行이다.

와싱턴에서의 마지막 밤, 오늘 낮에 백악관 뒤뜰에서 잠시 명상에 잠겼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

육중한 담벽도 없이 알몸을 들어내 보이듯, 한두사람의 경비원이 보일까 말까한 상태의 길 한가운데에 놓여진 백악관을 보면서, 여기가 무서운 힘을 지닌 독수리의 집이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田園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옆의 회색의 大型建物を 바라볼 때 섬찝함을 느꼈다. 그것은 수억의 국민을 이끌어나가는 수백의 知性的인 두뇌들이 그 건물 안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시카고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캐나다에서 술을 마시고 미국에 와서 주정을 했다는 그 시대의 劇面(언타치블)에 나오는 〈베스〉와 〈알카포네〉의 활

동무대가 전개된 이곳 시카고의 첫발은 자못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시카고 호수가의 경치나 미국 제 2의 大都市라는 매력보다는 美國建築의 一大 전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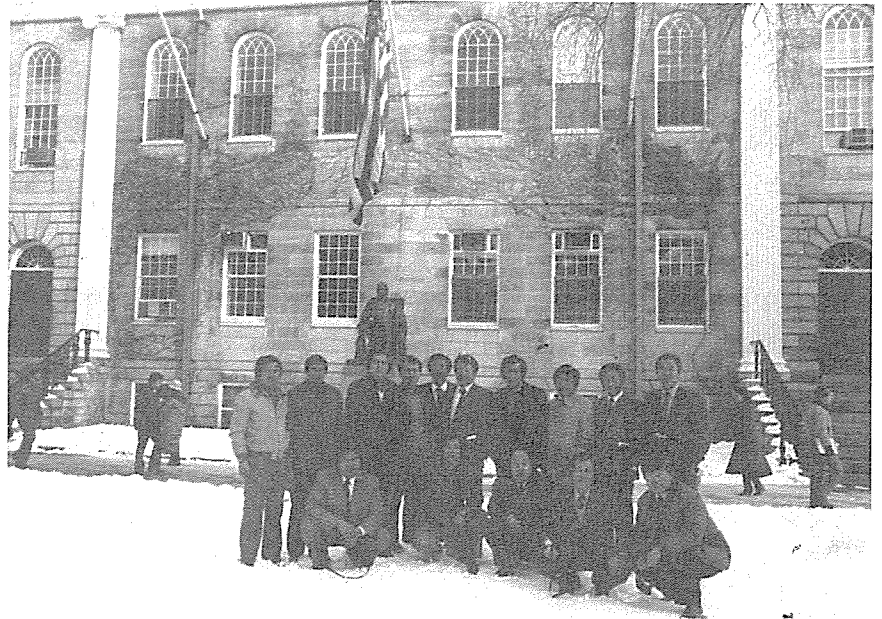
와싱턴空港의 시카고行 UAL 大합실에서 오갔던 농담 생각이 난다. 와싱턴에 올 때에도 美國務省 고위 관리가 우리 일행을 마중나올 것이라는 등의 농담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시카고空港에는 누가 마중나와 있을까? 한다. 알카포네가 제일 먼저 마중나올 것이며 다음은 집념의 女市長(현재)이 나올 것이라면서 여기저기서 제각기 이름들을 대어 본다. 라이트·S. O. M·미스, 그런가 하면 플레이 보이誌 사장이 바니 걸을 이끌고 대대적인 환영을 해줄 것이라는 익살도 있다. 모두가 부질없는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우리 일행이 시카고에 가는 기매가 컸었다.

미국의 제 2 都市로서 <엠포이어>와 <시어스>의 건물높이의 경쟁이 말하듯 高層建物과 도시를 뚫고 있는 수많은 道路, 각종의 화려한 회의장이 집결되어 있는 시카고는 산업·경제·교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남북으로 벌은 스테이트는 미시건湖에 가까운 미시건街와 함께 이 도시의 중심부이며 미시건街의 동쪽은 호수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公園地區이다. 또한 교육 및 학술의 집결지로서 이 도시 내에는 시카고大學·드폴大學·로요라大學·노스웨스턴大學·일리노이大學·일리노이工科大学 등이 있다.

시카고 일정에서는 대폭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고 있는 Pelmer House (Hilton Hotel)로 달려온, 이곳 國民大學에 재직 중인 徐商兩교수(I. I. T 研修)가 우리 일행이 알지 못했던 名所를 안내하겠다는 건의에 따라 徐교수에게 일정을 일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徐교수의 풍부한 建築知識을 바탕으로 한,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 덕분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S. O. M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金振煥·李鍾金 兩兄의 고마움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일행은 金·李 兩兄의 안내로 S.O.M 사무실



□ 하버드대 설립자동상 앞에서

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며 近間에 이루어진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교환되었고 여의도에 세워질 력기社屋의 設計概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는 바하이 Temple (예수+유대+마호멧), 미시건湖水, Oak Park의 수족관, Water Tower Place 등을 돌아 보았으며 그의 주요 건물을 순방하였는데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Unity Church and Parish House 1906 (Frank Lloyd Wright)
- *Avery Coonley House 1908(Frank Lloyd Wright)
- *Robie House 1909(Frank Lloyd Wright)
- *I. I. T. Campus : Institute Buildings 1945
 - Commons Buildings 1953
 - Crown Hall 1952-55 (Mies van der Rohe)
 - Arthur Keating Hall 1968 (Skidmore, Owings and Merrill)
- *860-880 Lake Shore Drive Apartments 1948-51 (Mies van der Rohe)
- *Chicago Civic Center 163-66
- *Federal Center 1959-73
- *One and Two Illinois Center 1969-72 (Office of Mies.)
- *IBM Building 1972(Office of Mies).
- *Time and Life Building 1970(Harry Weese and Associates)
- *The Dearborn Street Plazas

- Civic Center Plaza
- First National Bank Plaza
- Federal Center Plaza
- U. S. Courthouse Annex Plaza
- *Brunswick Buildings 1966(S. O. M.)
- *John Hancock Center 1969(S. O. M.)
- *Downtown High-rise Building 1961
- *Sears Tower 1974
- *McCormick Place 1971(C. F. Murphy Associates)
- *Marina City 1963
- *Lake Point Tower 1968

시카고의 近代建築의 一大 장관은 특수한 여건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카고 大火災事件은 일시에 大都市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세계적인 巨匠 建築家들이 이 도시로 운집하였으며, 그들은 마음껏 자기의 力量을 폐허 위에 펼쳐 지금의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종 건축물을 살펴본 감회는, 짧은 나의 識見으로서서는 표현하기 어려우며 더한층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아쉬움을 남기며 시카고를 떠나야 할 날이 왔다.

食堂 珍古介의 한식 맛, 시간에 쫓기면서도 변화가 백화점의 아이 쇼핑, 상품진열의 다양성, 고객에 대한 상인들의 친절, 급할게 하나도 없는 듯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리의 움직임이 있는 시카고.

異國에서 만난 徐교수와 해후 등등, 감회 속에 시카고의 밤은 깊어만 갔다.